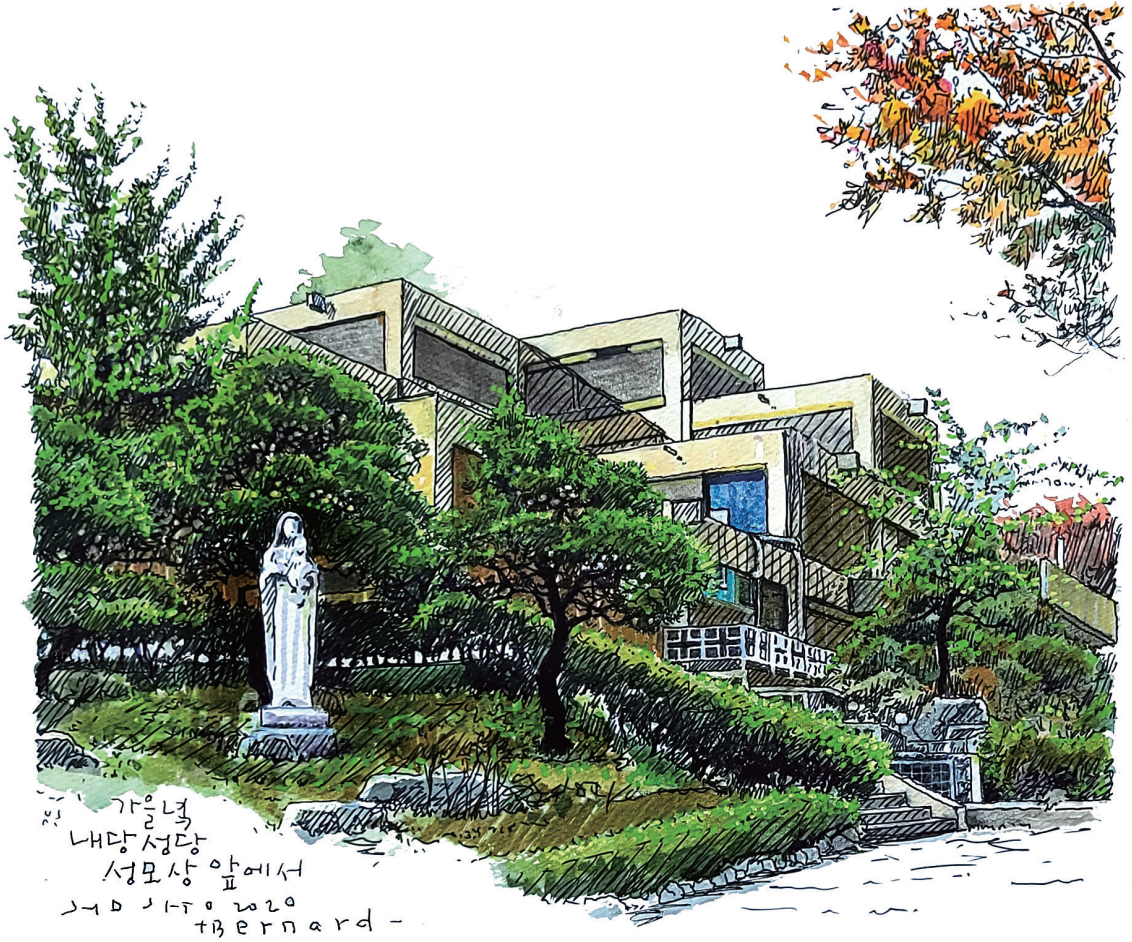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을 따라

연중 제6주일
2021. 02. 14. (나해) 제2255호

대구주보



가을녘
내당성당
성모상 앞에서
2021. 11. 13
Bernard -

내당성당 | 그림 _ 서원만 베르나르도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제1독서 레위 13,1-2,44-46 **화답송** ◎ 당신은 저의 피신처, 구원의 환호로 저를 감싸시나이다. **제2독서** 1코린 10,31-11,1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 알렐루야. **복음** 마르 1,40-45. **영성체송** 그들은 실컷 먹고 배불렀네. 주님이 그들의 바람을 채워 주셨네. 그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으셨네.

바라기만 하십니까?

신명본당 주임 | 김성일 모세 신부



요즘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각자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의 바람은 모두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코로나19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무엇보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어쩌면 고맙거나 소중하다 느끼지 못하고 당연하듯 살았던) ‘평범한 일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간절히 바라기만 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노력과 실천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나병환자의 치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시대의 나병환자는 죄인 취급을 받으며 가정과 사회 공동체로부터 추방되어 소외의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나병환자에게 절실한 바람은 자신의 몸이 깨끗해져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평범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는 예수님이시라면 자신의 몸을 깨끗이 해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먼저, 그는 주위의 눈총이나 위협의 여러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찾아갑니다. 그러한 그의 노력이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더불어 “스승님께서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며 겸손히 자신의 온전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적극적인 자세와 전적인 믿음을 보시고 자비를 베푸시어 간절한 바람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느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들어가기 합당하든 합당하지 않든, 주님의 자비로 우리에게 하느님 나라는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우리가 바라기만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 복음의 나병환자처럼 전적인 믿음을 지니고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즉, 세상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삶을 십분의 일, 아니 백분의 일이라도 구체적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우리의 사랑의 삶이 주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지니고 하느님 나라를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느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필문**

서로 사랑하여라

김시은 첼리나

저는 올해 대학 간호학과 마지막 학년을 보내고 있는 김시은 첼리나입니다. 교구 사회복지회에서 지원하는 ‘안셀모 장학회’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날, 저는 제대 앞에 꿰어앉아 ‘여기 기대라’ 하시며 어깨를 내어 주시던 예수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제가 교구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라고 사랑을 하였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본당에서 교리교사 활동을 하면서 교구 사회복지회의 장학금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추천해 주신 본당 신부님과 교구 사회복지회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장학금 지원 심사라는 익숙지 않은 상황에서 불안해하던 저를 따뜻하게 배려해 주신 사회복지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을 외부로 내보여야 한다는 사실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 어렵다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도 용기라고 저 자신을 격려하였습니다. 그렇게 선발 기회를 얻고자 노력한 결과에 한편으론 뿌듯하기도 하였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 장학금을 지원받게 되니 이것저것 목상할 거리가 많아졌습니다. ‘안셀모 장학회’는 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아들(안셀모)을 기억하기 위해 홍순복(바오로), 정호식(수산나) 부부가 기탁한 장학금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장학 혜택이 저에게 주어진 의미와 가치를 헤아려 보게 되었습니다. 유치부부터 시작된 13년간의 주일학교 교육에서 자주 접했던 “서로 사랑하여라”라는 계명의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기를 통해 신앙인으로서의 구체적인 실천 목표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여유 있었던 중학교 시절부터 저는 ‘해외 NGO 단체’의 후원자였지만, 대학 2학년에 일시적으로 후원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장학

회의 지원을 받고 보니, 형편 따라 놓아 버렸던 그 작은 실천이라도 빨리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의무감이 마음을 조급하게 합니다. 말이나 생각만이 아닌 행동의 실천이라는 변화를 통하여 제가 받은 사랑을 되돌릴 수 있는 첼리나가 되겠습니다.

측은지심으로 병자를 고쳐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닮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저는 포항 성모병원 간호사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국가고시라는 어려운 관문이 남아 있지만 4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막바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되어서도 제가 받은 도움의 손길을 마음속 깊은 곳에 새기겠습니다. 또한, 제가 앞으로 만나게 될 몸과 마음이 아픈 환자분들을 따스하게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간호사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간호사로서뿐만 아니라 제 인생에 있어서 만나게 될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복음적 소명을 제 안에서 발견하고 완성하여 하느님 보시기 좋은 사람이 되도록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교구 사회복지회의 ‘안셀모 장학생’으로 선발된 저 자신을 귀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겠습니다. 욕심을 조절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 교회와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주신 하느님과 대구대교구 사회복지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필문**

‘교구 사회복지회’에서는 매년 2월 본당의 추천을 받아 ‘교구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학기금을 기탁하신 분들의 소중한 뜻에 따라 6개 장학회(요한 장학회, 안셀모 장학회, 바오로 장학회, 성모의 계승 장학회, 정운현 요한 장학회, 인애 장학회)로 운영됩니다. 2020년 한해 교구 내 30명의 대학생에게 장학 혜택이 주어졌고 총9천만 원(1년 300만 원)의 장학금이 전달되었습니다.

교황, 오는 7월 첫 번째 ‘세계 조부모와 어르신들의 날’ 지낸다



2021년 1월 31일 바티칸 뉴스 | 번역 이정숙

프란치스코 교황은 조부모와 어르신들을 우리의 기억, 민족의 뿌리, 세대 간의 결합 고리, 지켜야 할 보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진정한 “선물”이지만, 우리는 그들이 지닌 풍요로움을 자주 잊고 지낸다고 말했다. 교황은 1월 31일 주일 삼중기도 말미에 발표한 대로, 이런 이유에서 ‘세계 조부모와 어르신들의 날’을 제정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황은 두 노인인 시메온과 한나가 “성령으로 가득 차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아본” 날인 2월 2일 주님 봉헌 축일에서 실마리를 얻어 이야기를 시작했다. 교황은 인생 여정에서 우리를 앞서간 이들의 첫 번째 위대함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여전히 오늘날에도 성령께서는 어르신들 안에서 지혜의 생각과 말들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하느님 찬미를 노래하고 민족들의 뿌리를 보존하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노년이 하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또한 조부모들은 젊은이들에게 삶과 신앙의 경험을 계승시키기 위한 서로 다른 세대 간의 결합의 고리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잊지 말아야 할 날

오늘날 코로나19 대유행은 그 무엇보다도 조부모와 어르신들을 위협에 빠뜨리고,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을 희생시켰다. 조부모와 어르신들은 후대에 계승될 기억으로 보호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종종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홀로 있게 됐다. 따라서 교황은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조부모들은 자주 잊혀지고, 우리는 뿌리를 보존하고 전하는 이 자산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이 때문에 저는 조부모와 어르신들의 날을 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회 전체가 매년 예수님의 ‘조부모’인 성 요아킴과 성녀 안나 기념일과 가까운 7월 네 번째 주일에 (이날을) 기념하게 될 것입니다.”

조부모와 젊은이: 꿈과 예언

조부모부터 젊은이들까지의 관계는 아주 가까운 것으로, 지속적으로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 교황은 심지어 “조부모들의 꿈에서 살아가는 세상”을 꿈꾼다고 말하며 (조부모와 젊은이의 공통 영역인 ‘꿈’)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교황은 이 특별한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조부모가 손자를 만나고 손자가 조부모와 만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엘 예언자가 말한 것처럼, 노인들은 손자들 앞에서 꿈을 꾸며 환시를 보고, 젊은이들은 노인들에게서 힘을 얻어 앞으로 나아가고, 예언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는 2월 2일은 조부모와 손자들이 만나는 축제입니다.”

한국 순교복자 124위 약전

문영인(文榮仁) 비비안나는 한양에 거주하던 중인 집안의 셋째 딸로 태어나, 일곱 살이 되던 1783년에 궁녀로 뽑혔다. 궁궐에서 성장하게 된 비비안나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 글씨를 잘 쓰게 되자 궁궐에서는 그녀에게 문서 쓰는 일을 맡겼다.

스물한 살 되던 1797년에 비비안나는 병에 걸려 잠시 궁궐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 그녀는 한 노파로부터 천주교 신앙에 대해 듣고 교리를 배워 입교하게 되었다. 그 후 여회장 강완숙 골룸바와 알게 되고 1798년에는 그녀의 집으로 가서 주문모 야고보 신부로부터 ‘비비안나’라는 세례명을 받았다. 병이 완쾌되자 다시 궁궐로 들어간 비비안나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 기도 생활을 하였는데, 끝내는 천주교 신자라는 것이 발각되어 궁궐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궁궐 밖으로 쫓겨난 비비안나는 성인들의 전기를 읽으면서 그들의 모범을 본받으려고 하였으며,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는 동안 자주 순교의 원의를 드러내곤 하였다. 그러다가 집에서도 쫓겨나게 되자, 청석동에 집을 얻어 살면서 헌신적으로 교회 일을 돕기 시작하였다. 또 1800년에는 정약중 아우구스티노 회장이 한양으로 이주해 오자 그에게 집을 빌려주기도 하였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난 뒤, 비비안나는 포졸들에게 체포되어 포도청으로 압송되었다. 그녀는 혹독한 형벌 도중에 정신이 혼미해져 신앙을 버리겠다고 말한 적이 있었지만, 즉시 정신을 차리고는 “비록 죽음을 당할지라도 천주교 신앙을 믿는 마음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라고 신앙을 굳게 증거하였다. 이후 문영인 비비안나는 형조로 이송되어 다시 형벌을 받아야만 하였다. 이때 그녀가 형조에서 한 진술은 다음과 같았다.

“포도청에서의 첫 번째 진술에서는 비록 천주교를 배척한다고 했지만, 돌이켜 보건대 입으로는 배척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실제로 배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곧 진술을 번복한 것입니다. 여러 해 동안 독실히 믿어온 신앙인데, 하루아침에 마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형조에서는 이제 비비안나의 마음을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사형을 선고하였다. 그녀의 죄목은 “천주교에 깊이 빠져 끝내 이를 뉘우치지 않으니, 만 번 죽여도 합당하다.”라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그녀는 1801년 7월 2일(음력 5월 22일) 8명의 동료들과 함께 서소문 밖으로 끌려나가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으니, 당시 그녀는 25세의 동정녀였다. 전하는 말에 따르면, 비비안나가 형벌을 받을 때 다리에서 나오는 피가 꽃으로 변하여 공중으로 떠올랐고, 참수를 당할 때는 목에서 나오는 피가 젖과 같이 희었다고 한다.

출처 :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홈페이지



문영인 비비안나
(1776 ~ 1801년)



cpbc 대구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성경통독

하느님 말씀과 늘 함께하고 싶은 분들,
성경을 직접 읽었지만 다시 듣고 싶은 분들을 위한 시간. 라디오 성경통독.
성경말씀에 대한 이해가 높은 성직자와 수도자들의 목소리로 함께 합니다.

방송일시: 금 오후 2시~3시 / 봉독: 성직자와 수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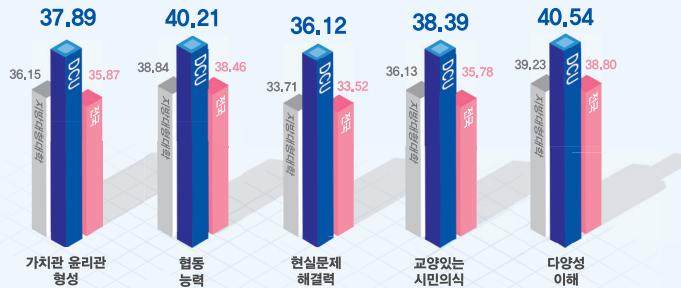
※ 라디오 FM93.1Mhz. cpbc빵(앱),
대구cpbc홈페이지 “라디오성경통독” 다시듣기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성경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인성이 실력입니다!

☆☆☆☆☆
대구가톨릭대학교 2020 대한민국 인성교육대상 수상

인성교육 분야 전국 대학 최고 수준

* 2019 학부교육실태조사(K-NSSE) 진단결과



2021학년도 정시모집 발표 및 등록: 2.8(월) - 19(금) 입학상담: 053-850-2580 / ibsi.cu.ac.kr

DCU 대구가톨릭대학교
DAEGU CATHOLIC UNIVERSITY

나 자신뿐만 아니라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 안내

2대리구 교정사목 후원미사	2월 15일(월) 10:30 범어성당	포항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2월 15일(월) 11:00 죽도성당
김천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2월 15일(월) 11:00 평화성당	-	-

성소 | 피정

한국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대상: 해외선교사제를 꿈꾸는 청년
문의: 성소국장, (010)8715-2846

프란치스코전교봉사수도회 성소자 초대

일시: 개인 상담 후 결정
대상: 봉사와 선교에 관심 있는
35세 이하 미혼 남성
문의: 성소담당, (010)3105-8184

천주성요한의의료봉사수도회 성소 모임

일시: 2.20(토) 14:00
장소: 개화동 수도원(서울)
문의: (010)3800-1579

교육 | 모집

신구약의 계약에서 하느님의 구원 체험

접수: 2.14(일)부터
대상: 신자, 말씀의해 안내자

구약: 창세기부터(오전 목, 저녁 화)
신약: 마르코 복음부터(오전 수)
장소: 경산베네딕도성경학교 내
(거룩한 독서반) / (010)2512-4627

2021년 겨자씨성서모임 신입생 모집

개강: 3.2(화)
구약반: (금) 10:00, (화) 20:00
신약반: (월) 10:00, (목) 20:00
심화반: (금) 10:00, (월) 20:00
문의: (010)4106-4627 / (010)7520-4627

경산베네딕도성경학교 신입생 모집

일반(구약과 신약): 목 10:00, 19:30
다시 읽는 구약성경(통독반): 수 14:30
심화(성문서): 월 10:00, 19:30
문의: (010)3311-2672 / (010)8243-0195

2021학년도 가톨릭관동대학교 추가 모집

접수: 2.22(월)~27(토)

의과대학, 공과대학, 사범대학, 의료
융합대학, 항공대학, 사회과학대학,
미디어예술대학, 관광스포츠대학
문의: (033)649-7000

가톨릭고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 과정

원서마감(추가): 3.31(수)
과목: 가톨릭 신학 26과목
대상: 평신도, 수도자
문의: (02)745-8339
<http://ci.catholic.ac.kr>

성기양로원(무료양로원) 어르신 모집

위치: 경북 칠곡군 동명면 한티 가는 길
내용: 매일미사와 공동기도, 산책로
대상: 65세 이상 일상생활 가능하신
기초생활수급자(남자 어르신도 가능)
문의: (054)974-8122
(010)6485-7796

대구대교구 SNS 안내 (Social Network Service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카카오톡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가는 길!
수성성당 연도실
기도와 실비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T. 010-3530-7700
010-3817-0111
양호진 요셉, 장효선 데보라

라식, 백내장수술 병원
김기산안과
Dr. KIM SAN KIM KIM KI SAN EYE CENTER
의학박사/전문사 김기산(안드레아)
(전 동산의료원 안과과장)
봉산문화거리 입구 미래에셋증권대우 9층
☎ (053)257-8875
www.kisaneye.co.kr

HS **희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 LTD
대표이사 서상운(안젤로)
송정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 522-5800 | 010-4508-4328
010-2002-4328

신랑각시결혼
전문직·초혼·재혼·만혼
의사, 약사, 교사, 공무원 환영
이원교(요안나) | 28년 경력
053)471-0707 | 010-2817-8888
<http://www.sk1004.co.kr>
남구 봉덕동 영대병원 사거리

“하지정맥류인을 위한”
이연재 맥 의원
원장 : 이연재(메릭)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방향 200m

빛 사랑 후원회원 모집
월간 <빛>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빛사랑> 후원회원을 모집합니다.
가입안내 및 특전
▶ 1인 1구좌 이상 가능, 1구좌당 매월 10,000원
▶ 후원회원을 위한 월 미사 봉헌,
연말 소독공제용 기부금 납입증명서 발급
▶ 문의 053)250-3158, 252-5392

헬스텍피아 보청기
HEALTHTECHPIA
청각학 박사(최 토마스 아퀴나스)가
제공하는 최고의 청각서비스
◆ 무료청력검사 ◆ 무료보청기상담
◆ 무료보청기적합 ◆ 청력재활프로그램
◆ 고성능, 최신행, 고품질 보청기
053)961-2525

마스크(의약외품) | 100장
KF94(국 내 산) | 35,000원
비말AD덴탈 | 100장
| 14,000원
대표 장 중 화(분도)
분도상사 053-425-4701
010-3537-5559

† 최시동 신부님 선종 1주기 미사
설 연휴 관계로 이동합니다.
일시: 2월 15일(월) 11:00
장소: 가톨릭 군위묘원

교육 | 모집

주교님들과 함께하는

온라인 성경통독 40주간 모집

일시: 4.4(일)~2022.2.5(토)
신청: 1.22(금)~3.14(일) / 4만원
문의: 교구 사무국, 250-3057
<http://bible40weeks.org>

3월 카나 혼인강좌

일시: 3.14(일) 10:00~13:30(시간엄수)
장소: 교구청 내 별관 대화합실
참가비: 2인 3만원(사전 신청) 무료주차
신청: 본당 사무실 / 마감: 3.4(목)
문의: 교구 가정복음화국, 250-3077

2021년도 1학기 가톨릭신학원 수강생 모집

성경과 가톨릭 신학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강좌를 통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필요한
신앙인으로서의 자세를 교육합니다.
개강: 3.1(월)
문의: 가톨릭신학원, 660-5105

제대꽃꽂이 봉사자를 위한

아카데미 제13기생 모집

문의: 전례꽃꽂이연구회, (010)2780-4535

제32기 가톨릭음악원 연구생 모집

개강: 3.6(토) 10:00
원서교부: 2.1(월)~28(일) 9:00~17:00
문의: 255-4847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모집

난타·고전무용·장구, 성가반주오르간,
사군자문인화, 연필초상화, 제대꽃꽂이,
캘리그래피, 서양화, 일반꽃꽂이, 플룻,
발성법, 우쿨렐레, 섬유공예, 태극권,
정리수납전문과과정
신청: 254-6115

대구가톨릭대 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

학점은행(사회복지·보육·평생교육·교양)
취미·교양 / 자격증 / 음악원(1:1레슨)
마감: 2.19(금) 선착순
문의: 660-5554-7
<https://conedu.cu.ac.kr>

바오로딸 3월 프로그램

바오로딸 독서 / 영화피정_주 1회
내 영혼의 글쓰기_매주 수
중년기 영성훈련_매주 목
기도훈련기초_2.26 매주 금
신청: (010)2047-1610

채용 | 안내

2대리구청 사무직원 채용(대체인력)

계약: 1년 6개월(3월 중 계약), 경력우대
마감: 2.23(화) 17:00(사무실 현장접수)

면접: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
졸업증명서, 본당 주임신부 추천서
문의: 743-7010

교구청 회계과 사무직 직원 채용

자격: 40세 미만, 세무·회계업무
유경험자
서류: 자필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
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마감: 2.23(화) 17:00 방문 또는 우편
제출: 교구 관리과, 250-3006

성요셉복지재단 종사자 채용

업무: 생활지도원, 시설관리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성요셉복지재단 홈페이지
채용정보 참조(이메일 접수)
문의: (054)954-4176

대구파티마병원 기증제대혈은행

제대혈기증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치있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문의: 959-8883 / 940-7126
<http://cord.fatima.or.kr>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질병의 조기발견과 다양한 검진을
통해 건강한 삶을 지키십시오.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예약 필수)
문의: 650-4591(8:00~17:00)

김덕영 성형외과
대구은행 본점 옆 교보생명 건너편
한영 아트센터 2층
(053)759-0888
의학박사
전문 의 김 덕 영 (스테파노)

리스토리결혼정보
결혼 칼럼 연재중 | 리스토리TV 유튜브 진행
안동 MBC, 아시아뉴스통신 방송 다수출연
23년 전통 ♥ 성혼시까지 맞선
대표 이만호 주신다 (교육학 박사)
M. 010.6571.3385
T. 053.586.3220

남창이명은
밝은귀보청기 & 청각재활센터
대학병원급 최신 검사 및 피팅 장비 보유
대구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 석사/청농사
최준우 (마카엘)
봉덕점 · 서문시장점 010-6481-8848

37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기
보조금 지원 무료 보청기
053)257-8500 / 253-7476
방인수 (프란치스코)
중앙네거리~라병원 사이 지하도 입구

발아 정형외과
무지외반증, 족저근막염
발목 인대손상, 평발 깔창치료
원장 윤현국(비오) 721-8879 (발발친구)
수성구 왕곡네거리에서 롯데캐슬빌딩 500m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그랜드 통증의학과
(비수술적인 통증 치료 전문)
허리, 어깨, 무릎 관절통, 스포츠 통증
프롤로 재생 주사, 도수 치료
통증의학전문-원장 정순우 (요셉)
범어네거리 두산위브더제니스상가 3층
☎ 755-5572 (지하철 범어역 8번 출구)

두산약국
경대병원 처방조제 전문
경대병원 응급실 건너편
T. (053)422-4423
김계남(크리스티나)